■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43-278.
http://doi.org/10.17948/kcs.2023..98.243

조선 태종 10년 女眞에 대한 “북정(北征)”의 역사적 맥락과 그 여파

정다함(鄭多函)*

목 차

1. 머리말
2. 太宗代 초중반 왕권의 추이와 朝鮮-女眞 관계의 변화
3. 明과 朝鮮 모두에 “入朝”하려는 여진의 제안과 태종의 강경한 대응
4. 태종 10년 올적합・오도리・올량합의 경원 침구와 “北征”의 강행
5. 태종 10년 “北征”의 여파와 태조대 조선왕실-여진 관계의 파국
6.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우선, 태종 초반에서 태종 10년에 이르는 조선 내 권력구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태종이 1410년 3월 올적합・오도리・올량합 등에 소위 “정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태종이 부왕인 이성계를 밀어내고 권력을 차지한 것이, 태종과 여러 여진 세력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는 기존 연구들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 등 여말 이래 태조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명의 초무를 받아들여 명에 입조하게 된 오도리・올량합・올적합 등의 수장들이, 소위 “人臣無外交”라는 원칙과는 달리 명에 入朝하면서도 전처럼 조선에 대한 入朝도 계속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에 착목한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여진 세력의 제안에 대해 태종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역시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태종이 1410년 2월 여진 세력이 경원을 침입한 것에 대해 강경하게 추진한 이 “정벌”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이 전쟁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런

*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부교수.

전쟁이 짧게는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조선의 동북면과 두만강 유역 여진 세력 모두에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다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종이 강행한 이 전쟁이 세종대 여진 관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이후 세종대 여진 관계의 추이도 전망해보려 한다.

주제어: 태종, 경원, 태조, 이성계, 여진, 동맹가첩목아, 파아손, 모련위, 건주위, 올적합, 올량합, 오도리, 알타리, 양속, 정벌, 조사의, 용비어천가.

1. 머리말

1410년(태종 10년) 2월 올적합 金文乃와 葛多介 등이 오도리와 올량합 갑병 300여기와 결탁하여 경원(慶源)을 침입해 약탈했다. 태종은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고 동년 3월 초 태종이 보낸 조선군이 두만강을 건너 두문 지역에서 여러 여진족 수장들과 그 부족들을 공격했다. 사료 상에서 "북정(北征)"과 "북벌(北伐)" 등으로 표현된 바,[1] 조선이 처음으로 여말 이래 태조 이성계와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던 여진족 수장들에게 소위 "정벌"을 가한 이 사건은,[2] 조선왕실과 올적합(兀狄哈)·오도리(吾都里)·올량합(兀良哈) 등의 여러 여진 세력들의 관계가 태종대 이후로 도달하게 된 변곡점으로서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이 여러 여진족 수장들을 초무하여 건주위로 끌어들이는 가운데 조선이 지니고 있던 명에 대한 인식과 여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조선왕실 스스로의 위상에 대한 인식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

1)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2월 壬子,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2월 己未.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丁卯.

2) 중화와 야만의 이항대립적인 문명론과 그에 입각한 위계질서를 통해 중화와 다른 타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중화중심주의와 이를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폭력으로서의 "정벌"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征伐"이라는 유교적 용어가 매우 중화중심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해 타자에 대한 폭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것이고 또한 조선도 이런 용어를 전유해 매우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사용해 왔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 "정벌"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반드시 따옴표로 인용한 것이다.
정다함, 「조선 초기의 '정벌'—천명, 시계, 달력, 그리고 화약무기」, 『역사와 문화』 21, 2011; 「征伐이라는 戰爭/征伐이라는 祭祀—세종대 기해년 "東征"과 파저강 "野人征伐"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2, 2013.

우선 김구진은 모련위(毛憐衛) 올량합의 존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명하는 가운데, 전부터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 올량합이 명에 입조해 모련위의 관직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명과 조선의 경합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모련위 올량합이 조선의 “정벌”을 받아 크게 약화되는 추이를 살폈다.[3] 그는 조선의 모련위 “정벌”이 조선과의 관계를 배반하고 명에 입조한 여진족 추장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 주요한 지점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모련위 올량합에 대한 주요한 사료들을 시대 순으로 일괄하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증에 중점을 둔 연구여서, 치밀한 논증을 통한 의미 부여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어 박정민은 먼저 태조에서 “정벌” 이전 태종대에 이르는 여진 관계의 성격을 구명하고, 그런 관계가 명의 여진 초무(招撫)로 인해 변화하는 양상을 살폈다. 이어 그런 변화 속에 태종이 여진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벌”을 시행했다고 보았다. 이는 태종대 여진의 경원 침입 전까지는 태조대 이래 여진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명의 여진 초무로 인해 동북면 여진족들이 명에 입조하고 관작을 받게 되면서 명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위기를 느낀 태종이 전격적으로 “정벌”을 단행하여 주도권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한 연구였다.[4]

이어 이규철은 조선의 모련위에 대한 “정벌”을 조선이 명에 事大하는 관계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폈다. 그는 조선이 명에 사대했지만 그 사대가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지는 않았다고 파악하면서, 태종이 명에 대한 사대의 명분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여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정벌”을 통해 압록강・두만강의 여진 세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했다고 보았다. 태종대 모련위 “정벌”을 바로 그런 대명인식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로 살펴본 것이었다.[5]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태종 10년 조선이 여진 세력에 가했던 “정벌”의 의미에 대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많은

3) 김구진, 「初期 毛憐 兀良合 硏究」, 『백산학보』 17, 1974 참조.
4) 박정민, 『태종대 제 1차 여진정벌과 동북면 여진관계』, 『백산학보』 80, 2008 참조.
5) 이규철, 「조선 태종대 대명의식과 여진 정벌(征伐)」, 『만주연구』 17, 2014 참조.

연구들이 대체로, 조선왕실의 입장을 중심에 놓고, 이때 조선이 소위 "정벌"을 가했던 일을, 조선왕실이 명에 사대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주적인 입장을 우선시했다고 보는 시각에서, 여진에 대한 명의 초무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실이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지켜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런 기존의 연구 경향과는 관점을 달리해, 1410년 3월 초 태종이 여진에 대한 "정벌"을 단행한 것을 최대한 맥락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우선, 태종 초반에서 태종 10년에 이르는 조선 내 권력구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태종이 1410년 3월 올적합·오도리·올량합 등에 "정벌"을 강행하게 되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태종이 부왕인 이성계를 왕좌에서 밀어내고 권력을 차지한 것이, 태조와 여러 여진 세력 사이의 관계에 그리고 태종과 여러 여진 세력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태종이 이 전쟁에서 두만강 유역 전체 여진 세력과의 대립도 불사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이 전쟁을 명의 여진 초무와 관련시켜 이해해 온 시각과는 관점을 달리한다.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와 파아손(把兒遜) 등 여말 이래 태조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명의 초무를 받아들여 명에 입조하게 된 오도리·올량합·올적합 등의 수장들이, 소위 "人臣無外交"라는 원칙과는 달리 명에 入朝하면서도 전처럼 조선에 대한 入朝도 계속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에 착목하되, 이를 소위 "양속"이라는 용어로 설명해 온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여진 세력의 제안에 대해 태종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역시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1410년 2월 여진 세력의 경원 침입에 대한 조선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이 전쟁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전쟁이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조선의 동북면과 두만강 유역 여진 세력 모두에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6]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종이 강행한 이 전쟁이 세종대 여진

관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이후 세종대 여진 관계의 추이도 간단히 전망해보려 한다.

2. 太宗代 초중반 왕권의 추이와 朝鮮-女眞 관계의 변화

태종 10년 여진에 대한 “정벌”이 결정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우선 주목할 문제는, 조선 내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도의 추이와 그 영향이다. 특히 태종이 즉위한 이후로도 사실상 부왕 이성계가 자신을 제거하려 배후에서 지휘했던 조사의(趙思義)의 난을 겪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 태종이 趙思義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실이 기원한 “肇基之地”로서 왕실의 핵심적인 세력 기반이자, 이성계가 여말부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던 여러 여진 세력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동북면 변경 사회를, 적대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성계는 1402년 조사의의 난이 발생하기 전 봄에 동북면 도순문사로 부임하는 박만에게, 이전 순문사가 동북면에서 시끄럽게 굴었는데 “동북면 사람들은 모두 내 형제들”이니 잘 어루만져 달라고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8] 이렇게 이성계가 자신의 형제들이라 강조했던 인적・지역적 기반이 난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의의 난이 진압된 이후 동북면 토호들은 처벌과 견제를 받고 그 세력 기반인 加別赤 역시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태종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여말 이성계 휘하의 이른바 “親兵”을 구성하는 핵심자원인 동북면의 세전 加別赤 500여 호를 태종이 하사

---

6) 필자는 조선시대 대외관계 연구의 사학사가 보여주는 민족주의적 서사 안에서 작동해 온 “세습적 희생자 의식(hereditary victimhood)”으로 인해, 그간의 연구들이 "교린"이라는 언설을 사용하며 조선을 선량한 피해자로 설정하고 여진족을 가해자로 파악해왔으나, 15세기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조선이 오히려 여진과 대마도와 같은 변경 사회의 이웃들에게 공세적으로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이를 성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비판적 분석을 제기해왔다(정다함, 「‘事大’와 ‘交隣’과 ‘小中華’라는 틀의 초시간적인 그리고 초공간적인 맥락」, 『한국사학보』 42, 2011, 302-311면),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쓰인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 공유되면서 세종대의 전쟁을 보다 성찰적인 관점에서 살핀 이규철의 연구(이규철, 「세종의 정벌은 정당한 전쟁이었는가 -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顚倒)」, 『역사비평』 138, 2022)나, 세종대 4군6진 설치를 다룬 기존 연구들을 좀 더 비판적 관점에서 살핀 박정민의 연구(박정민, 『세종대 4군 개척의 담론 다시 생각하기』, 『역사비평』 139, 2022) 등도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7) 안준희, 「朝鮮初期 太宗의 執權過程과 趙思義의 亂」, 『외대사학』 5, 1993, 190-209면.

8) 『太宗實錄』 권3, 太宗 2년 4월 癸酉. “東北面都巡問使朴蔓詣遵遙山告辭 太上王曰東北面之人皆予兄弟也 (…) .”

받았던 것은, 태종이야말로 태조의 아들들 중에 개국에 가장 공이 크고 태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는데,[9] 난이 진압된 직후인 1402년 12월 그 加別赤이 趙思義 난의 핵심적인 군사 기반이 되었다고 지목되자,[10] 태종부터 스스로 나서서 혁파시켰던 것이다.[11]

태조가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趙思義 난의 여파는, 태종의 통치 권력과 동북면 변경의 관계를 넘어, 이성계의 동북면 기반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던 여러 여진 세력들과 태종의 관계에까지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가 여말부터 자신에게 충성한 여진 세력들을 동원하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조사의의 군대에 가담했던 장수 임순례가 당시 반란군의 군세가 6-7천 정도 되는데 올량합이 오면 족히 1만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12] 이를 뒷받침한다.

이 계획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태조에게 지시를 받은 여진 수장들이었다면, 적어도 조사의 군에 가담하는 시늉이라도 하며 일단 태종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의 사료들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402년 12월 하순에 조사의 난이 실패한 직후, 태종이 신용봉을 보내 오도리와 올량합 등을 招安했는데, 그 이유를 『실록』은 "이들이 붙좇지 않기 때문이었다(以其不附也)"고 썼다.[13] 태종 3년(1403) 正月의 『실록』도, 趙思義의 난 이후 오도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숨어 나오지 못했는데 察理使 趙溫이 사람을 시켜 조회할 것을 종용하니 비로소 오도리 만호가 "來朝"하려 사람을 보냈다고 썼다.[14]

태종이 이렇듯 조사의 난 이후 동맹가첩목아를 포함하는 여진의 여러 수장들을 초무한 것은, 조사의의 난이 태조가 여말 이후 여진 세력과 맺어왔던 특별한 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반증하는 것이다. 태종의 이런 노력은,

9) 『太祖實錄』 권14, 太祖 7년 8월 己巳.
10) 『太宗實錄』 권4, 太宗 2년 12월 辛亥.
11) 『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 6월 丙午
12) 『太宗實錄』 권4, 太宗 2년 11월 甲辰.
13) 『太宗實錄』 권4, 太宗 2年 12월 己巳.
14) 『太宗實錄』 권5, 太宗 3년 正月 壬辰.

1404년(태종 4년) 3월에 동맹가첩목아가 친척들과 종자들을 이끌고 직접 "入朝"하여 한양에서 태종을 알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15] 태종의 입장에서 이는, 조사의 난을 통해 드러난 부왕과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결국 여말 이후 동북면을 기반으로 부왕이 구축해 온 조선왕실 중심의 지역질서(다수의 여진족을 그 주변부로 상정하는)를 태종이 성공적으로 계승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16]

그러나 이렇게 태종이, 부왕 이성계가 동북면에서 구축한 조선왕실 중심의 지역질서를 계승하고 그 질서에 속한 동맹가첩목아 등의 여진 수장들의 충성을 재확인하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미 태종 3년(1403년) 6월경에는, 오도리・올량합・올적합 등의 여진족을 초무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명 영락제가 칙유했다는 것이 조선에도 알려져, 태종은 이들이 본래 조선왕실에 속한다고 여기던 입장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삼부로 하여금 모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17] 이는 태종이 1404년 3월 동맹가첩목아를 입조하게 한 배경에 이러한 명의 동향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1404년 4월 명이 요동 천호 王可仁을 파견하여 삼산(參散)・독로올(禿魯兀) 등 11처(處)의 여진족 수장들의 입조를 종용한 것에 대해,[18] 조선이 황제에게 주문하여 이들이 본래 조선에 속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난 이후에도,[19] 동맹가첩목아를 비롯하여 여말 이래 태조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여러 여진족 수장들에 대한 명의 초무는 더욱 노골화되어 갔다.

결국 태종 5년(1405년) 9월 동맹가첩목아는 명에 입조하게 되고,[20] 파아손 같은 올량합의 유력 수장들도 이때 江南으로 가지 않으면 동맹가첩목아가 명에 입조해 관작을 받고 자신들까지 그 관하로 삼을 것이라며 명에 입조했

15)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3월 壬戌.
16) 이러한 당대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정다함, 「조선 태종 5년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明 "入朝"를 둘러싼 朝鮮과 明과 동맹가첩목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탈중심적/탈경계적 해석」, 『민족문화연구』 72, 2016, 142-144면.
17) 『太宗實錄』 권5, 太宗 3년 6월 辛未.
18)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4월 甲戌
19) 『太宗實錄』 권8, 太宗 4년 10월 己巳.
20)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9월 乙巳.

다.[21] 이때 태종은 집요하게 이들이 명에 "입조"하지 못하게 종용했고,[22] 결국 이들이 "입조"하자 크게 분노하여 경원에서 여진이 필요한 물자를 구하도록 무역을 허락했던 것을 금지시켰다.[23] 이런 흐름 속에, 태조 4년 12월의 『실록』 기사와 『용비어천가』에 여말부터 태조가 동정서벌하는 동안 종군하여 그 옆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충성했던 것으로 묘사된 여진족 수장들인 혐진올적합 括兒牙乞木那(金文乃와 동일인-필자)와 그 형제들이,[24] 결국 태종 6년 2월과 10년 2월에 연달아 경원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이다.[25]

위에서 살핀 일련의 사건들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동북면(함경도) 변경의 인심의 향배와 그 변경 너머로 태조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던 여러 여진 세력의 향배에 대해, 태종이 강한 의심과 불만을 품게 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해 준다. 이런 사정으로, 이 시점에는, 태조가 구축해왔던 동북면 변경의 인적/지역적 기반과 그 너머 여러 여진 세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태종 스스로가 온전히 계승하지 못했다고 여기며 초조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 속에, 태종 10년에

---

21)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9월 甲寅.
22) 정다함, 앞의 논문, 2016, 144-156면.
23) 『太宗實錄』 권11, 太宗 6년 2월 己卯
24) 『용비어천가』 53장(『龍飛御天歌』 권7 16b-26a)과 『태조실록』 권8, 太祖 4년 12월 癸卯의 기사 두 사료에 모두 그렇게 묘사된 여진 수장들 가운데, 고주(古州)의 혐진올적합(嫌眞兀狄哈)의 수장으로 괄아아걸목나(括兒牙乞木那)·답비나(荅比那)·가아답가(可兒荅哥)의 3인이 나오는데, 『용비어천가』 53장은 括兒牙乞木那를 "골야키무나"로, 荅比那는 "다비나"로, 可兒荅哥는 "컬더거"로, 각각 훈민정음을 써서 표기했고, 이 인명들이 각각 한 사람을 지칭하며 이들 "세 사람은 친형제다(三人親兄弟也)"라고 밝혔다(『龍飛御天歌』 권7 24a). 여기에, 『용비어천가』에 실린 括兒牙乞木那라는 한자 인명의 발음이 훈민정음으로 "골야키무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 "키무나"라는 발음이 실록에 표기된 金文乃라는 한자명의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太宗實錄』 권19, 태종 10년 2월 庚子에 金文乃와 葛多介가 경원을 공격했다고 쓰였는데 『世宗實錄』에는 형인 金文乃와 함께 巨兒帖哈이 누차 변경을 침입했다고 쓰였고(『世宗實錄』 권81, 세종 20년 5월 丁未) 또한 巨兒帖哈이 경인년(1410)에 경원을 침입해 한흥부를 죽였다고 쓰인 점(『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 정월 壬辰), 巨兒帖哈의 음가가 可兒荅哥가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3월 乙亥의 기사에 실린 길주도 찰리사 조연의 승첩 보고에 구주(具州)에 사는 올적합(兀狄哈)으로 金文乃·葛多介와 함께 경원을 침입한 적당으로 "多非乃"가 거론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결국 훈민정음으로 "골야키무나"로 표기된 括兒牙乞木那는 『太宗實錄』과 『世宗實錄』에서 1410년 2월 경원을 침입한 자로 나오는 金文乃와 동일인이고, 훈민정음으로 "컬더거"로 표기된 可兒荅哥는 『太宗實錄』과 『世宗實錄』에서 1410년 2월 金文乃와 함께 경원을 침입한 자로 나오는 갈다개(葛多介) 및 거아첩합(巨兒帖哈)과 동일인이며, 훈민정음으로 "다비나"로 표기된 荅比那는 『太宗實錄』에 나오는 "다비내(多非乃)"와 동일인으로, 각각 비정할 수 있다.
25) 『太宗實錄』 권11, 太宗 6년 2월 己卯.

태조와 그리고 태조의 동북면 기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여진 세력이 경원을 크게 침구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은, 태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태종이 여진족과 관련된 이런 중대 현안을 처리할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부왕 이성계였다. 태종은 즉위하고도 자신에 대한 노여움으로 궁궐에서 떠나 있으려는 부왕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태종 2년 2월부터 요동에서 조선으로 도망해 온 만산군 문제가 발생하자, 태종은 소요산에 있던 태상왕 이성계를 찾아 긴밀히 이 "북방의 일(北方之事)"를 논의했다.[26]

태종 4년(1404년) 4월엔 명이 삼산(參散)·독로올(禿魯兀) 등 11처(處) 여진족 수장들의 "入朝"를 종용하는 사신을 보냈다.[27] 이때 사신으로 온 요동천호 왕가인(王可仁)은 여말 이성계 휘하에 있던 동북면 "향화인" 출신인데 이성계의 추천으로 樞密의 지위까지 올랐다가 명 태조에게 귀순한 자였다.[28] 이런 곡절 때문에 왕가인이 칙서를 전달한 다음날 대궐에 나와 사적인 예를 행하고 태상전에서 이성계를 알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29] 태종이 왕가인을 접대하고 그가 명에 귀국하는 편에 사신을 보내 11처 여진족들을 본래처럼 조선에 속하게 해 달라고 명에 주문하여 결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도, 이성계의 조언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도 태종 8년 5월 시점에는 세상을 떠났다.[30] 특히 태종 6년 8월 민무질의 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촉발된 제1차 양위 파동은, 이듬해 6월 이후 태종의 명을 거슬러 신하들이 추진했던 세자와 명 영락제 딸의 혼사 문제를 계기로, 민씨 척족 세력을 비롯한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태종의 대대적인 숙청으로 비화해서, 4년이 넘게 여파를 미치는 중이었다. 이 숙청은 태종이 자신의 왕권과 후계구도를 공고하게 하려는 친위 쿠데타였지만, 이는 동시에 정비 민씨 가문 및 세자와의 불화와 자신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의 사망은 태종에게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

26) 『太宗實錄』 권3, 太宗 2년 3월 壬寅.
27)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4월 甲戌.
28)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4월 甲戌.
29)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4월 乙亥.
30) 『太宗實錄』 권15, 太宗 8년 5월 壬申.

결국 태종은 자신의 즉위 이후로도 동북면과 여진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던 부왕 이성계를 조사의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무력화시키는 데에 성공했지만, 그 댓가로 동북면과 그 너머 여진 세력과의 관계에서 이성계가 폭넓게 구축해 놓았던 유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런 결과에 과민한 상태로, 동북면 함경도 및 여진족 문제를 자신과 소수 측근에게만 의지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처음으로 맞게 된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심사숙고하며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태종 10년 2월 金文乃 등이 경원을 침입한 사건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3. 明과 朝鮮 모두에 "入朝"하려는 여진의 제안과 태종의 강경한 대응

태종 10년 2월 올적합 金文乃와 葛多介 등의[31] 경원 침구에 대한 태종의 "정벌" 강행을 다시 검토할 때에 가장 유의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오도리와 올량합의 가장 유력했던 수장들인 동맹가첩목아와 유파아손 등이, 태종 5년 명에 입조하면서도 기존에 맺었던 조선과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했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져 온 바와는 다르게, 소위 "중화중심주의"가 표방하는 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던 이른바 "인신무외교"의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기 때문이다.[32]

이때 여진의 여러 수장들이 보여준 이 인상적인 동향은, 먼저 동맹가첩목아가 명에 "입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동맹가첩목아는 1405년 9월 명이 파견한 왕교화적을 따라 명에 가게 되자, 태종이 동북면 도순문사로 파견했던 여칭에게

31) 앞서 각주 24)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太宗實錄』과 『世宗實錄』에 기록된 올적합 金文乃는 『용비어천가』 53장에서 고주(古州)의 혐진올적합(嫌眞兀狄哈) 괄아아걸목나(括兒牙乞木那)로 기록되어 있는(『龍飛御天歌』 권7 24a) 바, 括兒牙乞木那와 金文乃는 동일인이며 그리고 혐진올적합이다. 박정민도 사료 상에 등장하는 혐진올적합(嫌進兀狄哈)과 니마차올적합(尼麻車兀狄哈)이 동일한 세력임을 밝히면서 金文乃를 혐진올적합으로 구분한 바 있다(박정민, 「조선과 諸種兀狄哈의 관계 검토」, 『군사연구』 139, 2015, 194-195면).

32) 이러한 새로운 해석과 관점에 대해서는, 정다함, 앞의 글, 2016, 159-166면.

연락해, 황제가 조선의 청을 허락해도 자신이 입조하지 않으면 於虛出이 결국 자신의 백성을 차지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입조한다고 밝혔다.[33] 이는 그가 명에 입조하여 조선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알려온 것이다.

특히 동맹가첩목아는 이때 명에 들어가면서도 자신이 조선으로부터 받은 만호직 印信을 그 아우 어허리에게 주어 임의로 그를 만호로 삼고는 조선의 조치를 기다린다고, 전해왔다.[34] "인신무외교"라는 원칙을 따른다면, 동맹가첩목아가 칙서를 받고 명에 "入朝"하니, 조선에서 준 만호직 인신은 여칭에게 반납하는 것이 맞겠지만, 동맹가첩목아는 임의로 아우 동어허리에게 그 인신을 물려주어 만호로 삼고는, 그를 오동참으로 보내 조선의 인준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적어도 이 일은, 조선으로부터 받은 만호직과 그 인신의 처분에 대해 조선 조정과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성계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동맹가첩목아가 명에 "入朝"하는 일로 조선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조선으로부터 받은 관작을 동생이 승계하도록 조선 측의 허락을 받고, 이를 통해 자신도 간접적으로 朝鮮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 했던 일로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동향은 동맹가첩목아처럼 여말 이래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다가 명의 초유를 함께 받은 다른 여진 수장들에서도 나타났다. 이들 역시 명과의 "사대" 관계만을 택하지 않고 조선과의 관계 역시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1405년 9월 동맹가첩목아의 明 "입조"가 결정된 직후, 이 사태의 추이를 20여명의 여진족 수장들과 함께 인거참에 모여 예의 주시하던 올량합 만호 파아손(把兒遜)은, 이때 강남에 가지 않는다면 맹가첩목아가 황제의 성지를 받아 우리들을 그 관하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조"하는 것이라고 조선 측에 밝히면서, 특히 "입조"했다 돌아오면 "전처럼 조선을 우러러 섬길 것이다(如前仰事朝鮮)"라고 강조했던 것이다.[35]

1405년에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把兒遜) 등의 명 입조에 대해, 기존 연구

33)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9月 乙巳.
34)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9월 乙巳.
35) 『太宗實錄』 권10, 太宗 5년 9월 甲寅.

들은 대체로, 한 편에서는 명의 영향력에 주목하며 "중화중심주의"의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파악하거나, 다른 한 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는 조선의 입장과 영향력을 강조해 온 자국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왔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역사인식론의 구도의 자장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중심주의적인 관점이 강조하는 "인신무외교"라는 개념이 전제하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상대화하지 못하는 동시에, 자국중심주의적 관점이 타자와의 관계성을 역사화시킬 때 전제하게 되는 수직적 위계질서 역시 상대화하지 못하는 역사인식론적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근래에 여진 세력이 명과 조선에 소위 "양속(兩屬)"했다는 설명을 시도했던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들 자체가 중국 역사학계가 명의 여진에 대한 영향력만을 강조한다는 것을 비판하며 조선의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 여진의 "양속"을 강조한 것이라, 오히려 위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 그런 조선-여진 관계와 명-여진 관계가 상충한다고 전제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 "양속"을 강조한 연구들은 그렇게 상충하는 여진의 명 입조와 여진의 조선 입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양속"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는 정작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런 연구들은 "양속"이란 개념을 여진족이 명과 조선 양쪽에 모두 복속되어 그 질서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라고 정의하는 데에 사용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필자가 "양속(兩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처럼,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 등의 동향은,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이항대립적인 역사인식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 등처럼 여말 이래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다수의 여진족 수장들이 明에 "入朝"했던 일은, 전부터 이들이 조선왕실과 유지해 온 관계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에 대한 입조 이후에도 그러한 朝鮮과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을, 보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역사인식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명이라는 "중화"의 패권적 질서가 본격적으로 요동을 거쳐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변경으로 팽창해 가는 과정을 상정한다면, 결국 조선왕실이 여말 이래로 동북면과 여진 사이의 변경 지역에 구축하고 있던 지역패권주의의 질서와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양자가 조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 하는 방법 이외에, 이 광역적 통치질서가 계속 유지되면서 더욱 먼 변경을 향해 팽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중화중심주의의 그 질서가, 조선왕실과 여진과 같은 소위 "인신들" 사이에서 구축된 바와 같은 지역질서를 반쯤은 인정함으로써 이를 차용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수밖에 없는 바, 여진이 명과 조선 양쪽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양상을 삼자 모두 서로 반쯤은 모르는 척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그런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라면 이를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으로 정당화시켜 용인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해결책 아니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선 이런 현상은, 당시 동아시아의 광역적 통치질서가 성립・팽창하는 과정이, "중화"가 압도적으로 "주변부"를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조선왕실이 여진 세력들 사이에 구축해왔던 지역패권주의의 질서를 반쯤은 인정하고 차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 현상을, "소중화"가 자신에 "조공"을 바치고 "사대"하는 "人臣"을 "중화"에 빌려주거나, 또는 "중화"와 "소중화"가 "人臣"을 공유하는 현상으로 새롭게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조공국 빌려주기" 또는 "조공국 공유하기"라는 용어로 정의하려 한다.

다음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만강 유역 변경 사회의 여진 수장들 역시, 조선과 명 양쪽에 모두 "입조"해서 양쪽을 오가며 동아시아의 광역적 통치질서에 발생하는 균열의 지점들을 매개하고 충돌의 지점들에서 완충함으로써, 명과 조선과 여진 모두가 속한 동아시아의 광역적 통치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 등의 여진 수장들이, 명과 조선 모두에 "입조"하겠다고 먼저 조선에 제안했던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명과 조선에 비해 유교적 통치권력의 논리와 거리가 먼 여진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제안을 조선 측에 했던 것은, 지금까지 유교적 통치이념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왔던 소위 "중화

중심주의"의 질서가, 역사의 변경이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었는가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 태종이 여진 측에서 이렇게 명과 조선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제안을 도저히 용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맹가첩목아나 파아손의 제안에 대해, 태종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태종은 이런 제안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그 동안 동맹가첩목아가 명에 "入朝"하지 못하게 종용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경차관 조흡을 급히 동맹가첩목아에게 보내 명이 보낸 왕교화적을 따라 입조하게 하는 척 함으로써, 자신은 맹가첩목아에게 황제가 초유하는 뜻을 전했다고 변명할 구실을 만들었고,[36] 곧 이현을 명에 보내 황제의 뜻을 맹가첩목아에게 알렸다고 변명했다.[37] 이런 태종의 반응은,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태종이 이성계가 자신의 휘하로 여기는 동맹가첩목아를 포함한 여러 여진의 수장들이 자신에게 복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명이 끌어들이려 했던 11곳의 여진족(조선에서는 "십처인민"이라 칭했던)을 전처럼 조선에서 관할하도록 황제의 준청을 받아낸 1404년(태종 4) 10월에, 태종이 태조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당시 태종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한양에 정도하고 십처인민을 청해 얻었으니 효가 이보다 클 수 없다"고 크게 칭찬하였다.[38] 여말 이래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진 세력들인 이 십처인민을 명으로부터 지켜낸 것에 대해 효도를 했다고 칭찬한 것 자체가, 이 여진족들이 자신의 신하라는 태조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1405년 태종이 명 사신이 오는 것은 전적으로 동맹가첩목아를 초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면서, 하륜과 조영무에게 "동맹가첩목아는 동북면의 藩籬이니 경들은 이를 도모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이러한 태조의 여진 인식을 태종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입장에서 결국 태종이, 1405년 여말 이래 이성계와 밀

36)『太宗實錄』卷10, 太宗 5年 9月 丙午.
37)『太宗實錄』卷10, 太宗 5年 9月 壬子.
38)『太宗實錄』권8, 太宗 4년 10월 己卯.

접한 관계를 맺어 왔던 다수의 여진족 수장들이 명에 "입조"함에도 불구하고 전부터 맺어왔던 조선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제안을, 묵살해버렸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태종은 明에 "入朝"한 이 여진 수장들에게 곧바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경원(慶源) 요새 아래에서 소금・철・소・말 등을 무역하던 것을 금지시켜 버렸던 것이다.[39]

경원에서 무역을 끊어버리자, 1406년 2월 올적합 金文乃가 경원의 소다로를 공격하여 우마를 약탈해갔다.[40] 이어 1409년(태종 9) 4월에는 오도리(吾都里)의 구로(仇老)・보야(甫也)가 경원의 옹구참(雍丘站)에 침입하여 주민 15명과 그 우마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41] 태종 9년 8월에는 그 자식이 소와 말을 훔친 일로 올량합 지면으로 도주하려고 했던 북청의 여진 천호 주인(朱因)을 참수했다.[42] 결국 1410년(태종 10) 2월 올적합 金文乃와 葛多介 등이 오도리・올량합의 병력과 함께 대거 경원을 공격해 병마사 한흥보까지 전사하게 된 일은,[43] 이렇게 태종의 강경한 대응으로 동북면에서 여러 여진 세력과의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었다.

4. 태종 10년 올적합・오도리・올량합의 경원 침구와 "北征"의 강행

태종 10년(1410) 2월 올적합 金文乃・葛多介 등이 오도리・올량합 甲兵 300여기와 함께 경원부를 공격했다. 모련위지휘 보을오(甫乙吾)가 병마사 한흥보(韓興寶)에게 이 침입을 미리 알렸지만 한흥보가 이를 믿지 않다가 이튿날 새벽 적병이 이르자 허겁지겁 백 명의 병력으로 출전해서 패전했고 그 자신도 화살을 맞아 3일 만에 죽었다.[44]

---

39)『太宗實錄』권11, 太宗 6년 2월 己卯.
40) 박정민은, 이때 올적합 김문내가 경원의 소다로를 공격한 것에 대해, 조선 건국 이후로 최초로 여진이 조선을 침략한 것으로, 태조대에 우호적이었던 여진과의 관계가 "침략과 방어라는 관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된 사건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박정민, 「태종대 제1차 여진정벌과 동북면 여진관계」,『백산학보』80, 2008, 248쪽).
41)『太宗實錄』권17, 太宗 9년 4월 丁丑.
42)『太宗實錄』권18, 太宗 9년 8월 丁巳.
43)『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2월 庚子.
44)『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2월 庚子.

가장 먼저 살필 것은, 이들이 대거 경원부를 공격한 구체적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사료상으로는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을 찾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조선 측의 책임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실록』 편찬에서 조율된 결과로 짐작된다.

결국 金文乃와 葛多介가 이끈 올적합·오도리·올량합 세력이 경원에 침입한 이유를 추측할 수밖에 한다면, 우선 이미 4년 전 명의 여진 초무에 대한 보복으로 야인들이 경원에서 무역하는 것을 조선이 금지했다는 점과 올적합 金文乃가 그에 대한 불만으로 경원 소다로를 공격했다가 그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더욱 원한이 깊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45] 또한 경원에 침입한 金文乃를 비롯해 그 친형제들인 갈다개(葛多介)·다비내(多非乃) 등은 여말 이래 태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올적합의 수장들인데,[46] 이때 이들이 명의 초무에 응해 관작을 받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4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명의 여진 초무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이 경원에서 야인들이 무역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로 이들이 곤경에 처하자 대거 경원에 입구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48]

동북면 병마도절제사 연사종(延嗣宗)이 한흥보가 패사한 것을 치보하자, 태종은 크게 놀라며 한흥보의 장례를 후히 치르게 했다.[49] 이로 미루어, 태종도 올적합·오도리·올량합이 대거 침입해 병마사까지 전사한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金文乃·갈다개·다비내·동맹가첩목아·파아손 등 여말 이래 태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올적합·오도리·올량합의 여러 수장들이 직접 공격을 이끌었거나 연루되었다는 점도, 태종의 노여움을 배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이들을 공격하려 일찍이 경원을 지켰던 자들을 모두 불러 방법을

45) 『太宗實錄』 권11, 太宗 6년 2월 己卯.
46) 이들에 대해서는 본고의 각주 24) 참조.
47)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壬午.
48) 박정민은 이때 경원에 여진의 침입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 "여진인들이 경원 지역만을 침략한 것은 당시 이곳에 무역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선과의 무역이 원활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을 얻기 위해 경원지역을 침략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박정민, 「태종대 제 1차 여진정벌과 동북면 여진관계」, 『백산학보』 80, 2008, 251쪽.
49)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2월 丁未.

물었다. 하윤과 성석린 등의 의정부 대신들이 이들은 대군에게 덤비려 하지 않고 도망했다가 우리가 퇴각하면 다시 와서 침요할 것이라, 수고만 하고 후일 변경의 걱정거리만 더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였으나, 올적합 등이 입구하여 변장을 죽였는데 이를 치지 않는다면 징계할 방법이 없으니 그 도의 병마 1천을 동원하여 친다면 단번에 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영무 등의 의견에 따라, 공격하려는 뜻을 굳혔다. 그리고 곽승우(郭承祐)와 안을귀(安乙貴)를 각각 경원진 병마사와 경원진 좌우익 도천호로 삼아 경원으로 보내고, 조연(趙涓)을 주장으로 삼아 신속하게 공격을 추진했던 것이다.[50]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태종이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며 강경하게 군사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점이다. 태종은 조연을 주장으로 삼아 여러 장수들이 모두 그 지휘를 받아 공격하도록 한 뒤에, 재상들에게 慶源에는 德陵과 安陵 두 능이 있을 뿐이고 능을 옮긴 일이 전에도 있었으니, 능을 옮기고 군을 폐해 경성으로 물러나 지키자고 물었다.[51] 이는 공격을 결정하는 단계에 이미, 태종이 전쟁으로 인해 이 여진족들이 경원에 있는 목조(穆祖)와 그 비의 무덤인 덕릉과 안릉을 훼손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재상들은 태종에 동의했고, 같은 해(1410년) 덕릉과 안릉은 함주로 천장되며,[52] 이듬해인 1411년 3월 경원진은 혁파된다.[53]

다음으로 처음부터 태종의 이런 강경한 입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신들의 반대를 일축하면서, 결국 자신의 의도에 영합하는 조영무 등 일부 측근의 의견만 중시하며, 심사숙고하지 못한 채로 전쟁을 결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하륜과 성석린 등의 의정부 대신들은 우리 대군이 이르면 이들은 싸우지 않고 도망했다가 우리 군사가 퇴각하면 와서 괴롭힐 것이라 수고만 하고 후일 변경의 걱정만 더하게 된다고 우려했는데,[54] 태종은 듣지 않았다. 결국 태종은 강경한 자신의 뜻에 맞게, “올적합 등이 까닭 없이 입구해 변장

50)『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2월 丁未.
51)『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2월 丁未.
52)『太宗實錄』권20, 太宗 10년 10월 辛酉.
53)『太宗實錄』권21, 太宗 11년 3월 庚寅.
54)『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2월 丁未.

을 죽였"으니 이를 가만 둘 수 없고, "그 도의 병마 1천을 조발해 공격하면 단번에 멸할 수 있다"고 말한 조영무 등의 의견을 따랐다.[55]

조영무는 태종의 측근으로, 태조대에 강계등처 도병마사를 지낸 적이 있고,[56] 이후로 절제사로서 군권을 오래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조영무의 관력을 후히 평가하더라도, 과거 같았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만강 유역의 여러 여진 세력에 대해 수십 년 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었을 태조 이성계나 이지란과 같은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태종은 조영무가 신하들 중에서 가장 자신의 뜻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자, 곧바로 그 쪽으로 경도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별다른 근거 없이 "그 도의 병마 1천을 조발한다면 일거에 멸할 수 있다"던 조영무의 의견은, 여진이 조선의 대군에 대적하는 전형적 전술의 핵심을 잘 지적한 하륜과 성석린의 의견과 비교할 때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었는데, 태종은 조영무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 조영무의 이러한 의견을 대군이 아니라 소수의 정예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하자는 뜻으로 보는 해석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57]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무가 적을 "일거에 멸할 수 있다(一擧而滅之)"고 한 것은 경솔한 의견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뒤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그런 공격이 결국 병력 충원 및 군량 조달의 큰 부담과 동맹가첩목아의 경원 침입과 올적합의 경원 재침과 그로 인한 곽승우의 패전 등을 초래했고, 궁극적으로는 동북면 변경 사회와 변경민의 삶에 큰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때 "北征"을 처음 논의할 당시부터, 직접 경원을 공격했던 올적합 수장들뿐만 아니라, 오도리와 올량합 세력 역시 아울러 멸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올량합 지휘 파을소(파아손) 역시 조선과 올적합 사이에서 양쪽으로 투항하니 당연히 함께 멸해야 한다고 강조되었고, 이때에

55)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2월 丁未.
56) 『太祖實錄』 권5, 太祖 3년 3월 丙寅.
57) 이규철은, 이때 조선군이 모련위 지휘 파아손(파을소) 등을 공격한 것은 이후의 사례들과 비교해 "출병 규모가 매우 작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당시 조선에서 대군을 동원하기 보다는 소수의 정예병력을 동원해 적을 기습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파악했다(이규철, 「조선 태종대 대명의식과 여진정벌」, 『만주연구』 17, 2014, 86쪽).

섬멸하지 않으면 무위(武威)를 과시할 수 없고 오도리(吾都里)·올량합(兀良哈) 잡종(雜種)도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한 번에 거사하여 멸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다.[58] 이는 사실상 오도리와 올량합 등의 다른 여진 세력들 모두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매우 강경한 의견이다.

이 의견을 제시한 인물도 역시 처음부터 강경힌 태종의 뜻에 영합했던 조영무였다. 이렇게 1410년 2월 경원 침입의 장본인인 올적합 金文乃와 葛多介 뿐만 아니라 오도리와 올량합까지 공격하겠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의견이다. 그런데도 이런 의견이 제시된 것은, 이 침입에 연루된 것으로 짐작되는 오도리와 올량합 등에 대한 태종의 노여움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 달인 1410년 3월 두만강을 건너 진격했던 조연 휘하의 조선군은, 올적합 金文乃와 葛多介를 내륙 깊숙이 추격해 응징하지 않고, 실제로 올량합인 모련위 지휘 파아손과 다른 오도리 지휘 등을 공격해 살해하고는 승첩을 보내왔던 것이다.[59]

결국 당시 논의에서 드러난 이런 지점들은, 태종이 1410년 2월 경원을 침입한 적들을 공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말 이래 태조의 휘하로 여겼던 올량합·오도리·올적합 등의 여러 여진족 수장들이 명에 "入朝"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이 공격을 시행했음을 보여준다.[60] 이러한 강경한 입장에서, 태종은 마치 조선과 함께 경원에 침입했던 올적합 金文乃와 葛多介를 협공하려는 척하고 있던 동맹가첩목아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청주 이북의 군마 150필을 조발하여 "北征"하는 군사에 보태게 하는 가운데, 조연에게 구체적인 공격 지시를 전달했다. 태종은 조연으로 하여금 군사를 길주에 머물러두게 하고, 경원에 있는 군사는 성보를 수축한다고 성언하여 저들의 방비가 해이해지기를 기다려 3월 그믐이나 4월 초에 공격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진무 조침(趙琛)을 조연에게 보내 그 공격 시기와 진행에 대한 사기(事機)를 주었다.[61]

---

58)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2월 丁未.
59)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3월 乙亥.
60) 김구진이나 박정민과 이규철 등의 선행 연구는 모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다. 필자도 그런 의견을 공유하되,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근거와 논증을 더하려 것이다.
61)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2월 己未.

그리고 1410년 3월 초 임신일에 찰리사 조연이 이끄는 조선군이 두만강을 건너고, 조전절제사 신유정・김중보와 경원병마사 곽승우가 그 뒤를 따르며,[62] 공격을 개시했다. 이 때 조연은 신유정・김중보・곽승우와 함께 군마 1150명을 거느리고 豆門에 이르러 毛憐衛指揮 파아손(把兒遜)・아고거(阿古車)・착화(着和)와 천호 하을주(下乙主) 등 네 명을 죽이고 군사를 풀어 그 부족 수백 인을 섬멸하고 가옥 등을 불사르고 귀환했다. 그리고 곧 승전을 의정부에 보고했다.[63] 조연이 첩음을 의정부에 보고한 것은, 이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짐작케 해주는 사료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지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연의 보고가, 조선군이 오음회의 동맹가첩목아가 있는 곳에 이르러 올량합 지휘 아란의 손자 가시구를 붙잡아, 동년 2월 경원을 침입한 적당을 토벌하기 위해 올적합 김문내(金文乃)・갈다개(葛多介)・다비내(多非乃) 등의 행방을 물어 파악한 것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64] 물론 이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염두에 둘 때,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군이 경원을 침범한 적을 분별하며 옥석을 가려 토벌했음을 강조하려는 수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의미에서, 조연의 보고가, 올적합 金文乃・葛多介・多非乃 등의 경원 침입 보다, 오히려 동맹가첩목아와 보을오(甫乙吾)가 경원부 소다로를 약탈하였고 보을오・아고거・착화 등이 당초에 金文乃・葛多介 등과 함께 경원을 침략할 것을 논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65] 아고거와 착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공격에서 조선군이 살해한 여진의 수장들이며, 보을오 역시 이 과정에서 조선군이 생포했던 여진 수장이었다. 조연의 보고는 이런 논조의 연장선에서, 올적합과 올량합과 오도리와 여진은 모두 서로 혼인하는 같은 족류여서 서로 모의하고 변경에 들어와 인물을 살상하고 우마를 약

62)『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壬申.
63)『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乙亥.
64)『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乙亥.
65)『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乙亥. “(…) 又聞童指揮聲言助戰 領兵至慶源府所多老 掠取各戶家財牛馬 甫乙吾托以謁見察理使 多率徒衆 經過所多老 恣行搶奪 (…) 葛多介金文乃當初同至大父阿亂處 與甫乙吾阿古車着和等管下同議入侵 (…) .”

탈하여 국가에 큰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66] 이는 역시 조선군이 당초 경원 침입의 주적들이 아니라 파아손・아고거・착화와 천호 하을주 등과 그 부족민들을 공격하여 살해했던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조연의 보고가, 동맹가첩목아가 분명 조선군과 힘을 함쳐 도적을 잡겠다 약속까지 하였는데 지금은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가 버렸고, 아고거와 파아손과 착화 등도 두문에서 회합을 하고 요해처에 복병을 하며 동맹가첩목아와 함께 서로 호응하며 난을 꾸몄다고 강조한 것에 주목해야 할 듯하다.[67] 왜냐하면 이런 서술을 통해 이 사건의 주적을 경원에 직접 입구했던 金文乃・葛多介・多非乃가 아닌,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아고거・착화 등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조연의 첩보는, 사실상의 적괴(賊魁)는 아고거와 파아손과 착화와 하을주이고 그래서 그 관하 군인 160명을 잡아 죽인 것이며, 金文乃 등은 아예 처음부터 모의를 주도한 우두머리가 아닌데다 이미 도망하여 숨어버린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고, 따라서 더 진군하기 어려우므로 경원부에 주둔하여 명령을 기다린다고 의정부에 보고한 것이었다.[68]

결국 이렇게 조연의 보고를 면밀히 살피면 태종이 이 공격을 강행한 동기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조연의 승첩 문건의 내용이, 처음부터 이 공격이 동년 2월 경원 침입을 이끈 김문내・갈다개・다비내 등에 대한 토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과 아고거와 착화 등 명의 입조에 응했던 다수의 여진 수장들을 본보기로 공격하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문건 내용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듯이 보일 수 있는 조선의 대응을 정당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서술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 보고에 대한 태종의 반응도, 이때 이렇게 조선군이 파아손과 아고거와 착화 등을 살해한 동기를 명에 숨기고 은폐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보고를 받자 태종은 "지휘 등이 모두 중국 조정의 직사를 받았는데 지금 마음대로 죽였으니

66)『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乙亥.
67)『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乙亥. " (…) 童猛哥帖木兒初稱同力捕賊 明爲期會 今則傳通東良北人 領兵退屯 阿古車把兒遜着和等 亦於豆門一會 伏兵要害 與童指揮相應構亂 (…) ."
68)『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乙亥. " (…) 已將賊魁阿古車把兒遜着和及下乙主等及管下軍人一百六十名捕斬 其金文乃等 初非首謀 亦已逃竄 累日程途 難以進兵 已於慶源府所多老 退屯待命."

상국에 흔단을 일으킨 것이다"라며 속히 명에 알리고 사로잡은 인구를 모두 찾아내 돌려보내라고 하여,[69] 마치 자신은 몰랐던 일인 것처럼 반응했다. 이는 이 일을 명에 알리는 과정에서, 이 일은 태종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변장과 여진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인 것처럼 면피하기 위한 연출로 보인다.

이렇게 태종이 숨기려 했던 본심은, 이 보고가 이르기 전에 기록된 사료로 보이는 바, 같은 달인 1410년 3월 임오일의 실록 기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때 의정부에서는 金文乃와 葛多介 등이 명의 관작을 받았으니 요동에 자문을 보낸 후에 치라고 아뢰었다. 그런데 태종은 "金文乃 등이 조정에서 관작을 받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알지 못하는 바인 것이고, 하물며 변경의 도둑은 찰리사가 변장으로서 스스로 치는 것이니, 반드시 통유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던 것이다.[70]

이때 의정부에서는 분명히 요동에 자문을 보낸 후에 공격하라고 아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고 『태종실록』에서 이 사료의 바로 앞 사료(같은 임오일)에도 "이때에 조연의 첩보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쓰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71] 이 사료는 실제로 조선군의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기록된 사료에서, 앞서 조연의 보고를 받고 중국 조정의 직사를 받은 여진 수장들을 마음대로 죽였다며 이 공격의 책임을 조연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몰랐던 일인 양 반응했던 것과는 달리, 태종은 김문내 등이 명의 관작을 받은 것은 황제가 하는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니 원칙적으로 모르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이라 강조하며, 변경을 침입한 여진족은 자신의 지시 없이도 변장이 알아서 공격하는 것이므로, 굳이 먼저 요동을 통해 명에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런 태종의 발언은, 결국 태종이 이 사건을 나중에 명에 알리면서도, 자신이 명의 초무에 응해 입조하여 관작을 받은 파아손과 아고거와 착화 등에 보복하려 군대를 보내 공격했던 것임을 은폐하려는 태종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 태종의 발언은, 이번 조선의 공격으로 명에 입조해 그 관직을

69) 『太宗實錄』 권19, 태종 10년 3월 乙亥.
70)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壬午.
71)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壬午.

받은 여진족 수장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전혀 자신의 개입 없이, 조선의 변장이 조선의 변경을 수시로 공격해 오는 여진족들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것처럼 포장하여, 교묘하게 그 혐의와 책임을 피해 가려는 태종의 의도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태종의 입장은 명에 보내는 문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태종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명에 "入朝"했다고 여긴 여진족 수장들에게 보복한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면, 명에 알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때 李玄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주본(奏本)에는, 경원을 원래 침입했던 올적합의 수장들이 金文乃・葛多介・多非乃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를 쓰면 명에서 왜 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엉뚱한 파아손 등을 죽였냐고 물을 수 있으므로, 아예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72]

나아가 이 주본에서는, 경원을 침입한 적을 변장이 추적하려 할 때, 모련위지휘 올량합 파아손과 착화 등이 도적들의 소재를 알려주고 건주위지휘 동맹가첩목아도 자신도 군사를 거느리고 도적을 잡겠다고 하였는데, 막상 조선의 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추포하기 위해 두문에 이르자 이들이 태도를 바꾸어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복병으로 공격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에 파아손・아고거・착화・하을주 등이 올적합과 공모하여 조선의 군사를 공격하다가 죽게 된 것이라 써서, 이들이 이 사건에서 조선을 배신해 공격한 가장 중요한 적당인 것처럼 명에 알렸던 것이다.[73] 그리고는 파아손 등이 일찍이 조정의 직사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어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고 주문한다고 써 보냈다.[74]

동시에 태종은 경원진 방어병력을 수백 명 더 증원하고, 동맹가첩목아까지 도모하려던 계획은 농사철을 맞아 중지하여, 경원진의 안정적인 수비에 치중했다.[75] 그리고 자신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변장인 조연이 임의로 이 공격을 구처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혹시라도 다른 말이 나오거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찰리사 조연도 경원에서 불러들이고 연사종을

72)『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辛卯.
73)『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辛卯.
74)『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辛卯.
75)『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戊子.

대신 보냈다.[76] 속으로는 목적을 이룬 것으로 판단했을 태종은 이제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일은, 맹가첩목아와 파아손 등 여말 이래 태조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여러 여진족 수장들이 명에 "입조"하여 관작까지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은 명 입조를 통해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 등이 자신의 관하들에 대한 영향력을 명에게 인정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동맹가첩목아나 파아손 역시 자신의 관하가 올적합이 주도한 경원 침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조선의 공격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따라서 예민하게 사태를 주시하며 조선 측과 자신의 관하 여진 세력 사이에서 자신의 관할권을 강조하려 했던 것은, 동맹가첩목아나 파아손 등으로서는 당연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입장에 대해, 위에서 살핀 바처럼, 조선에선 신중하게 고려한 바 없었다. 태종은 미리 갈다개 등의 침입 첩보를 알려왔던 이들이 중간에 태도를 돌변해 공격해 와서 결국 불의에 죽게 되었다는 첩보와 주문의 서술을 통해, 이 사태의 책임을 여진족 수장들에게 전가했다. 명의 관작을 받은 여진족 수장들을 살해한 책임도 태종은 임기응변으로 구처한 변장에게 돌렸지만, 그마저도 조연을 정말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어서, 이후로 태종은 조연을 문책하거나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 경원진에서 불러들였고, 사헌부에서 그가 주장으로 처치에 마땅함을 잃고 가벼이 적봉(賊鋒)을 범하여 여진의 전면적인 침입을 초래한 죄를 논하는 상소를 올리자, 조연이 무슨 죄가 있냐며 그 상소까지 불태워버렸던 것이다.[77]

몽고에 親征하는 일로 경사를 비웠다가 영락제는 뒤늦게 조선이 이 일에 대해 주문한 내용을 확인했다. 황제가 "저 올량합(兀良哈)이 참으로 그렇게 무례하다면 우리가 요동 군마를 조발해 갈 테니, 그대들도 군마를 조발해 와서, 저 놈들을 깨끗이 잡아 죽이자"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은, 황제가 몽고에 친정하는 틈에 신속하게 공격을 진행시킨 태종이 다행히 기대했던 효과를 얻은

76)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壬辰.
77)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4월 甲子.

일로 보인다.[78] 그러나 태종이 기대했던 흐름은 거기까지였다.

세종대 세상을 떠난 조연의 졸기에 “올량합 파아손 등 8명의 지휘(指揮)를 유인해 살해하고 아울러 부족 수백 명을 죽이고 승첩(勝捷)을 아뢰니 이로부터 틈이 더욱 깊이 벌어졌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79] 명에 입조해 관작을 받아 지휘가 된 8명의 수장들을 이 공격으로 잃게 된 여러 여진 세력의 원한은 매우 큰 것이었다. 이렇게 태종이 태조의 휘하들로 자신에게만 복속되어야 한다고 여겼는데 명에 “入朝”하여 관작을 받은 여러 여진 수장들과 그 부족민들을 본보기로 공격해 살해한 이 잔혹극은, 거의 Genocide에 가까워 보인다. 결국 태종의 이 전쟁은 그의 바람대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조선군의 공격을 당해 일가친척들이 몰살당한 것에 원한을 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선군에 활과 칼을 겨누는 이들을, 쉽게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5. 태종 10년 “北征”의 여파와 태조대 조선왕실-여진 관계의 파국

결국 태종이 강행한 이 “정벌”은, 오히려 더 많은 여진 세력의 원망을 사서 이 전쟁이 더욱 확전되는 계기가 되었다.[80] 우선 오도리의 건주위지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경원과 경성 등처를 공격해왔다. 맹가첩목아의 아우 어허리(於虛里)가 오도리 구로(仇老)・보아(甫也)와 함께 병력을 이끌고 1410년 4월 경원 옹구참을 공격해 22명을 죽였고, 이어 경성 부진정에서 경원진무 권을생 등 15명을 공격해 죽였으며, 시원참 또한 공격하였다.[81] 동맹가첩목아는 동년 2월 조선군이 두문(豆門)의 전투에서 자신의 관하인 지휘 아란(阿亂)의 손자 오도리 합아비(哈兒非)・가시구(加時仇)를 붙잡아 정보를 캐고는 죽인 일로

78) 『太宗實錄』 권20, 太宗 10년 9월 丁卯.

79) 『世宗實錄』 권46, 世宗 11년 10월 甲申. “ (…) 至豆門不得其賊 誘殺兀良哈把兒遜等八指揮 竝殲部族數百人 以捷聞 自此構釁益深 (…) .”

80) 조용철이 이때 조선의 공격은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와서 이후 오도리・올적합・올량합 등의 반복되는 침입을 겪었으며 이런 사정 때문에 두만강 일대의 여진 전체와 대립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조용철, 「조선 초기 여진 관계의 변화와 동북면 지역 진출 과정」, 『역사학보』 233, 2017, 57쪽).

81)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4월 辛丑.

노여움이 심해 입구를 꾀하고 있었다.[82] 그러다 이때 여러 곳을 공격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도로가 막혀 경원 덕릉과 안릉의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병마사의 廩給이 지급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같은 달 4월에, 올적합이 등이 다시 경원부의 아오지에서 조선군을 공격했다. 병마사 곽승우가 싸우다 크게 패하여 관군 73명이 전사하고 곽승우도 화살에 맞아 아오지 목책으로 쫓겨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동맹가첩목아도 여기에 합세해 와서 오도리 지휘를 죽인 것은 무슨 죄 때문이냐며 따져 물었던 것이다.[83] 게다가 이 전투는 앞서 동맹가첩목아의 아우 동어허리와 함께 경원 옹구참을 공격했던 오도리 구로·보야 등과 올적합 金文乃·葛多介 등이 대거 연합하여 1000여명이라는 상당한 군세를 이루어 아오지를 공격한 것으로,[84] 태종이 경원부가 함락되었을까 크게 우려까지 하는 상황이었다.[85]

수세에 몰린 경원을 구원하기 위해 태종은 이때 첨총제(僉摠制) 노원식(盧原湜)을 경원 조전병마사로 삼아 경원·경성·길주·단주·청주 출신의 甲士 150명을 거느리고 부방하게 하였다.[86]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길주도 찰리사 연사종이, 경원이 사면으로 적에게 포위되었는데 성안에 저축한 양식이 모두 허갈되어 군민과 우마가 굶주리고 있으니, 경원부를 경성(鏡城)으로 옮겨서 인명을 살리라고 상소하였다.[87] 때문에 태종은 급히 경원진을 경성으로 후퇴하여 옮기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경원진의 병력과 주민들을 경성으로 옮기게 되자, 경원의 덕릉과 안릉을 지킬 병력까지 비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태종은 급히 대호군 박미를 보내 경성병마사 김을화에게 명하여 700명의 병력으로 경원으로 가서 능실을 숙위하게 하고, 노원식과 안을귀 등도 병력을 거느리고 경원으로 돌아가 방어

82)『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3월 壬辰.
83)『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4월 己酉.
84)『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4월 甲子.
85)『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4월 己未. "(…) 上謂大臣曰 慶源之事 何更無報歟 無乃陷沒乎 (…)."
86)『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4월 己未.
87)『太宗實錄』권19, 太宗 10년 4월 甲子.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88] 이어 경원 북쪽 해변에 사는 골간올적합(骨看兀狄哈)의 수장 두칭개(豆稱介)에게 사람을 보내 초안(招安)하게 하였는데, 이는 두칭개가 조선에 공격당한 올량합 등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것이다.[89]

그러나 며칠 후인 1410년 5월 15일, 당시에는 禁兵으로 불릴 정도로 정예 병력이던 동북면 갑사를 이끌고 부방한 노원식이 경원 근처 용성(龍城)에 입구한 적과 싸우다 패전하였고,[90] 곽승우 등도 역시 패전하였다.[91] 이 때 동북면 도순문사 임정이, 이 용성 싸움의 패전을 알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길주도 찰리사 연사종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태종은 놀라 연사종을 급히 서울로 불러들였고 대신들과 이지란의 아들 도총제 이화영(李和英)으로 대체할 것을 논의했다.[92] 사태가 이런 국면에 이르자, 태종은 어쩔 수 없이 장수들의 잘못을 다스리고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여, 유정현으로 동북면 도선무처치사로 삼아 부월을 주어 보냈고, 김남수를 길주도 도안무찰리사로, 하경복을 경원병마사로, 최윤덕을 경성병마사로 각각 삼아서 보냈다.[93]

게다가 경원에서 후퇴해 경성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경원의 능실을 지키기 위해 김승주에게 병력을 주어 보낸 것 때문에, 경성 방어에 또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 때문에 태종은 최악의 경우로 상정했던바, 동맹가첩목아가 덕릉과 안릉을 侵陵하는 일이 정말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94] 때문에 사람을 보내 능실을 살펴보게 하였다. 다행히 김승주로부터 능실을 치키는 인호와 비석이 모두 전과 같다는 보고를 들었지만, 이런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태종이 길주도 찰리사 연사종을 이화영으로 교체하는 하교를 내릴 때에, 태종 스스로가 "지금 적세가 더욱 성하여 여러 장수가 여러 번 패전하였다"고 밝힐

88)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丁卯.
89)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丙子.
90)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辛巳.
91)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乙未.
92)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戊子.
93)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6월 丙申.
94)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6월 丙申.

정도로 전황은 좋지 않았다.[95] 이해 4월 곽승우가 경원을 침입한 올적합과 아오지에서 싸우다 패전한 것에 대해서도, 『실록』의 기사에서조차도 "적이 모두 부모처자의 원한이 있어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싸우는데 곽승우가 용맹만 믿고 지모(智謀)가 없었기 때문에 패한 것이었다"라고 쓸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이다.[96] 이러한 기록은 경솔했던 태종의 강경책과 그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는 여진인들의 원한서린 공격이 불러온 파국에 직면한 조선 조정의 난감함을 잘 보여준다.

거듭되는 패전으로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자, 동북면의 군량미 수급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 동년 5월에는 강원도 병선 4척이 동북면으로 쌀을 운반하다가 침몰하여 약 1000석 가까이 잃었는데,[97] 이는 동북면 군자곡이 부족해 강원도 군자곡을 동북면으로 옮기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같은 달에도 의정부에서, 동북면 군자곡이 6만석뿐인데 지금 도적을 막는 병력이 8-900이나 되며 전쟁의 지속(遲速)도 알 수 없다고 걱정하면서, 강원도 군자를 동북면으로 조운하고 경상도 안강(安康) 이북의 군자를 강원도에 조운하자는 의견을 올렸다.[98]

동년 6월에도 좌정승 성석린이 동북면에 저축한 잡곡이 5-6만석에 지나지 않아, 강원도에서 군자곡을 조운하자는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어 결단하기 어려우니, 왕지를 받아 시행하자고 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동북면 한도의 병력 1000명을 동원하면 일거에 적을 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조영무조차도, "이 동북면의 일이 언제 끝날지 헤아릴 수 없으니 강원도 군자를 조운하는 것이 가하다"라는 의견을 낼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조영무의 이런 의견에 황희 등이 異見을 제시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99] 급기야 같은 달, 지난 용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125인의 동북면 부방 갑사와 그 僕從 250명에게 관에서 지급하던 급여인 公廩을 주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했던 것이다.[100]

---

95)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戊子.
96)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4월 己酉.
97)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戊辰.
98)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戊子.
99)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6월 庚子.
100)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6월 辛酉.

더욱 심각한 문제는, 1410년 3월초 조선에서 "북정"을 단행한 이후로 여름 내내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동북면 변경 사회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동북면 지역은 이미 이때 심한 기근으로 변경의 주민들이 굶주림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3월 초 조선군이 두만강을 건너 두문을 공격하기 이전에도, 동북면 高州 이북의 7-8군이 양식이 모두 떨어져 굶주림을 면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하여, 진휼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101] 동년 4월에도 태종은 동북면의 飢困이 매우 심하다면서 이를 진휼하기 위해 권초를 경차관(敬差官)으로 삼아 보냈다.[102]

이런 사정은 동맹가첩목아 등이 보복으로 다시 경원 등지를 공격하면서 더 악화되었다. 동년 4월에 동맹가첩목아의 무리가 경원 옹구참과 경성 부진정과 시원참을 공격했을 당시의 사정을 전하는 『실록』 기사는, 時原 등처의 사람들이 모두 산을 타고 들어가 도둑을 피했고, 부가참(富家站) 이북의 사람들은 밭 1무도 경작하지 않고 모두 떠날 마음이 있었다고 쓰고 있다.[103] 2월에 한흥보가 전사한 뒤부터 경원 백성들이 적을 두려워하여 업을 편안히 하지 못했고, 4월 경원의 아오지에 침입한 올적합에게 곽승우가 패전한 뒤에는 경원 백성들이 더욱 두려워하여 감히 原野에 나와 목축과 농사를 하지 못하고 적을 피해 용성으로 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다.[104]

7월 이후로는 충돌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동북면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 굶주리는 주민들을 진휼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강원도 회양 이북의 군자를 동북면으로 옮기게 한 것은, 이러한 진휼을 위한 조치였다.[105] 그러나 동북면 군자곡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 정도 군자곡으로 동북면의 기근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1410년 3월 초 단행된 "북정" 이후로 조선군의 패전이 거듭되며 사태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되며 수습되지 않는

101)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3월 庚午.
102)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4월 丁酉.
103)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4월 辛丑.
104)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4월 己未.
105) 『太宗實錄』 권20, 太宗 10년 8월 甲寅.

상황은, 안 그래도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동북면 변경 사회를 더욱 조잔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결국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동맹가첩목아 등이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조선도 적당히 못 이기는 체하면서 포로를 교환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맹가첩목아가 5월에 이대두를 보내 화호(和好)의 의사를 밝혔을 때도 태종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106] 태종은 맹가첩목아를 오히려 토벌해야 하는데 화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겁약(怯弱)한 것이라며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 국면을 현실적으로 끝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德陵과 安陵을 함주로 옮긴 조치였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여러 여진 수장들의 반격으로 패전을 거듭하며 난감한 처지에 빠졌지만, 천장을 성공시킨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穆祖와 그 비의 능을 지켜내고 결국 무사히 함주로 옮겼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하게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태종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경원부를 경성으로 옮긴 것에 더해 이 덕릉과 안릉을 모두 함주로 천장한 것은, 이때 조선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여러 여진 세력들에게 더이상 경원 지역까지 조선의 군대가 들어와 주둔하며 이들에게 위협을 가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조치가 될 수 있다.

태종은 1410년 8월 초하루에, 성산군 이직 등을 동북면 천릉사로 삼고, 중군도총제 이화영으로 천릉시위사를 삼고, 또 동북면 도체찰사와 동북면 도순문사에게 명해 이들을 군사로 호위해 가게 하였다.[107] 이렇게 태종은 천릉을 본격화하였다. 태종은 이때도 동맹가첩목아를 치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실행되지는 않았고, 전흥을 동맹가첩목아에게 보내 그 동향을 살피는 것에 그쳤다.

같은 달 말에는 목조의 능을 천장하기 위해 파묘했다.[108] 9월 들어서는 동북면 도순문사에게 명해 전쟁을 통해 잡아 온 올량합의 부녀를 돌려보내게 했는데,[109] 이는 목조의 능을 천장해서 이제 바야흐로 함주로 옮기는 중에 불의의 변이 없도록, 조선군에 의해 공격당한 올량합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106)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5월 丁卯.
107) 『太宗實錄』 권20, 太宗 10년 8월 乙未.
108) 『太宗實錄』 권20, 太宗 10년 8월 庚申.
109) 『太宗實錄』 권20, 太宗 10년 9월 辛未.

보인다. 이어 같은 달에 천릉도감에서 덕릉과 안릉을 천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아뢰었고,[110] 다음달인 10월 말에는 덕릉과 안릉을 함주(咸州) 달단동(韃靼洞) 언덕에 합장하여 천장하였다.[111]

태조대 공주가 경원부로 승격되고 덕릉이 정비된 것은, 태조대 동북면 변경 지역사회와의 관계나 여진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일로 보인다.[112] 그런데 태종은 1410년 2월 “정벌”을 논의할 때부터 경원의 덕릉과 안릉을 옮기자는 의견을 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조 이성계 이전부터 이 가문이 동북면을 중심으로 변경의 여러 여진 세력들과 맺어왔던 밀접한 관계가 전처럼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감정적 대립이, 양측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양측 사이에 전쟁이 터졌고 결국 목조가 살았던 곳으로 『용비어천가』에서 조선왕실이 기원한 곳이라 묘사했던 경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원으로부터 이 두 무덤을 옮겨 먼 남쪽 함주로 천장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그만큼 이 지역이 일찍이 조선왕실이 기원했던 땅임을 보여주는 흔적이 희미해지고, 따라서 조선왕실과 이 지역 변경 사회와의 물리적/심리적 유대감 역시 멀어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원 지역을 두고 경계를 오가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조선왕실과 여진의 여러 세력들 사이에도 역시 그만큼의 거리감이 생기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4월에 조선은 경원진까지 파해버리게 된다.[113]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 길었던 1410년이 저물며 군사적 충돌은 찾아들게 되었지만, 태종과 여말 이래 태조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동맹가첩목아 등의 여러 여진족 수장들 사이의 무너진 신뢰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웠다. 동맹가첩목아는 1410년 12월과 1411년 1월에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쳐왔고, 조선에서는 1411년 1월 박미를 보내 동맹가첩목아가 약탈해간 인구와 우마를 송환하게 하였으며,[114] 다음 달에는 굶주리고 있는 동맹가

110) 『太宗實錄』 권20, 太宗 10년 9월 丙戌.
111) 『太宗實錄』 권20, 太宗 10년 10월 辛酉.
112) 지요환 「태종대 慶源府 移設·德安陵 遷葬의 의미와 東北面 변화」, 『사림』 72, 2020, 148-152면.
113) 『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 3월 庚寅.

첩목아 무리에게 곡식 150석을 하사하기도 하였다.[115] 그러나 곧 동맹가첩목아가 심처로 이주하면서 그 때를 틈타 침략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번 갑사 300명과 시위군 300명을 경성의 군사에 보태 경계를 강화하였다.[116]

1411년 4월 동북면 오음회에 거주하던 동맹가첩목아는 결국 조선의 공격을 염려하여 황제의 제3황후의 아버지인 어허출이 살고 있는 봉주(개원로)로 이주해 버렸다.[117] 이로 인해 결국 당분간 조선과 동맹가첩목아의 관계는 이전과 비교해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제 동북면과 두만강 유역의 변경은 상당 부분이 비워졌고, 이 지역에서 조선과 여진의 여러 세력들 사이에 전과 같은 관계가 다시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종대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6. 맺음말

본고에서는 우선, 태종 초반에서 태종 10년에 이르는 조선 내 권력구도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태종 10년 3월 태종이 전달에 경원을 침입한 올적합·오도리·올량합 등에 소위 "정벌"을 강행하게 되는 과정과 그 함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태종은 자신이 즉위한 이후로 여전히 동북면과 여진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부왕 이성계의 권력을 조사의의 난을 진압하며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 댓가로 동북면과 그 너머의 여러 여진 세력과의 관계에 있어 부왕인 이성계가 폭넓게 구축했던 유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는, 매우 과민한 상태로 동북면 함경도 및 여진족 문제를 자신과 소수 측근에게만 의지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처음 맞았던 것이었다. 때문에 명의 초무에 대한 여진의 반응과 조선 변경에 대한 여진의 침구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심사숙고하며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는 기존 연구들이 이 전쟁을 명의 여진 초무와 관련시켜 이해해 온 시각과는 관점을 달리했다. 이 글은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 등 여말 이래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이제 명에 입조하게 된 오도리·

114) 『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 정월 庚午.
115) 『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 2월 丙申.
116) 『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 정월 辛巳.
117) 『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 4월 丙辰.

올량합・올적합 등의 수장들이 인신무외교라는 원칙과는 달리 명에 "입조"하면서도 조선에도 "입조"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에 착목했다. 이런 관계를 일부 기존 연구들이 "양속(兩屬)"이라 칭해온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 관계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들을 명과 조선 모두에 "양속"한 수동적 존재로 파악해온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조선과 명 양쪽에 모두 "입조"해서 조선과 명 양쪽을 오가며 동아시아의 광역적 통치 질서에 발생하는 균열의 지점들을 매개하고 충돌의 지점들에서 완충함으로써, 두만강 유역 여진 변경 사회의 수장들은 명과 조선과 여진 모두가 속한 이 동아시아의 광역적 통치질서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명과 조선 양쪽 모두와 관계를 맺겠다는 제안을 동맹가첩목아와 파아손 등의 여진 수장들이 먼저 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진족 수장들의 역할과 제안을 태종이 무시하고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며 발생했다. 태종 10년 3월 초에 조선군은 두만강을 건너 진격해, 전달에 경원에 침입한 적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두문 지역에서 파아손・착화・아고거 등의 여진족 수장들과 그 부족민들을 공격했다. 결국 이는 태종이 동맹가첩목아 등 여말 이래 태조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여러 여진 세력의 수장들을 조선왕실의 번리・번병이라 강조하며 명의 초유에 응하지 못하게 종용하다가, 결국 이들이 명의 입조에 응하면서도 조선과의 관계도 전과 같이 유지하겠다고 중요한 제안을 한 것을, 태종이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여겨 철저히 무시하고 이들에게 보복한 사건이었다.

애초부터 이 전쟁은, 1410년 2월 경원을 침구해 병마사 한흥보까지 전사시킨 주범이었던 올적합 金文乃와 갈다개 등을 응징함과 동시에 파아손과 아고거와 착화와 하을주 등을 본보기 삼아 명에 입조한 여진족 수장들에 보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조치였다. 이로 인해 여말부터 태조대를 거쳐 유지되던 조선왕실과 여진 여러 세력과의 관계는 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워졌다. 조선 조정에서도 공격을 이끈 主將 趙涓이 처치에 마땅함을 잃고 경솔히 적봉(賊鋒)을 범해 침입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조선 측의 기록조차도,

억울하게 부모처자들을 잃은 여진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싸운다고 전할 정도였다. 이 공격은 경원 침구와는 크게 관계가 없었던 두만강 유역의 여러 여진 세력들까지도 조선을 적대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러 여진 세력들은 복수를 위해 동북면에서 파상적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결국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해 공격하고 몽고 친정 중인 황제에 주문함으로써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던 태종의 계획은 실패하고 전쟁은 확전되었다. 동북면은 이미 오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되자 동북면 변경의 주민들은 목축과 농사 등의 생업에 안정적으로 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전쟁으로 인해 동북면 변경 사회와 여진족 변경 사회 모두 더욱 조잔해지고 피폐해졌던 것이다.

결국 조선에서는 경원의 덕릉과 안릉을 지켜내어 함주로 옮기고, 경원부를 포기하는 대신 경성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태종의 입장에서 보면, 목조의 무덤이 있는 왕실의 발상지라서 명에도 양보하지 않고 지키려던 땅인데, 이 "정벌"로 인해 결국 여진에게 잃어버린 셈이 된 것이다. 동맹가첩목아 등의 세력들은 개원으로 이주하며 건주위에 합류함으로써 당분간 이들 세력과 조선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 이로 인해 결국 여말 이후로 경원 등의 두만강 유역에서 서로 조우했던 두 변경 사회 사이에 형성되었던 밀접한 관계망은 결국 형해화되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조선과 여진 사이의 관계는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세종대 대여진 정책에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또한 용비어천가가 편찬되면서 여말 이래 이성계 휘하에서 종군했던 여러 여진족 수장들이 강조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세종대의 추이는 태종의 강경한 여진 정책이 초래한 파국에 가까운 후과를 다시 수습해야만 하는 세종의 고민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세종대 여진과의 관계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高麗史』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龍飛御天歌』

김구진, 「初期 毛憐 兀良合 硏究」, 『백산학보』 17, 백산학회, 1974.
박정민, 『태종대 제 1차 여진정벌과 동북면 여진관계』, 『백산학보』 80, 백산학회, 2008.
_____, 「조선과 諸種兀狄哈의 관계 검토」, 『군사연구』 139, 육군군사연구소, 2015.
_____, 『세종대 4군 개척의 담론 다시 생각하기』, 『역사비평』 139, 역사비평사, 2022.
이규철, 「조선 태종대 대명의식과 여진 정벌(征伐)」, 『만주연구』 17, 만주학회, 2014.
_____, 「세종의 정벌은 정당한 전쟁이었는가—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顚倒)」, 『역사비평』 138, 역사비평사, 2022.
안준희, 「태종의 집권과정과 조사의의 난」, 『외대사학』 5,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1993.
이 훈, 「누르하치의 6대조 몽케테무르」 1・2, 『Webzine 民硏』 2013년 2월호・3월호.
정다함,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屛 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東方學志』 141,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_____, 「征伐이라는戰爭/征伐이라는祭祀—세종대 기해년 “東征”과 파저강 “野人征伐”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2, 고려사학회, 2013.
_____, 「조선 태종 5년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明 “入朝”를 둘러싼 朝鮮과 明과 동맹가첩목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탈중심적/탈경계적 해석」,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조용철, 「조선 초기 여진 관계의 변화와 동북면 지역 진출 과정」, 『역사학보』 233, 역사학회, 2017.

【Abstract】

Rethinking Chosŏn's First Zengfa (征伐) against Jurchen tribes in Tumen river regions in 1410 and Chosŏn-Jurchen Relationality in King T'aejong's Reign

Chong, Daham*

Going beyond the nationalist narrative of post-1945 South Korean historiography which has only essentialized Chosŏn's position in the relations with its neighbours as an innocent victim based on "hereditary victimhood", this paper seeks to revisit and rethink Chosŏn's First Zengfa(征伐) against Jurchen tribes in Tumen river regions in 1410. By taking a closer look at what King T'ajong has gone through in domestic politics and in his response to Ming's attempt to subjugate those major Jurchen chieftains of Tumen river regions who have served his father King T'aejo since late Koryŏ before the war, this paper will first explain the dubious motivation of King T'aejong to take this drastic military action against those Jurchen chieftains. Then, secondly, this paper will delve into the details of the process of this war, tries to explain how this war ended up slaughtering many Jurchen chieftains who didn't seem to be involved with the Jurchen raid on northen border town Kyŏngwŏn which triggered King T'aejong to proceed Zengfa(征伐). Finally, going beyond the existing frameworks which have only substantialized this military action of Chosŏn as a righteous self-defense, this paper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apocalyptic consequences this war has caused around the frontier societies of Chosŏn and Jurchen in Tumen river regions and talk about what the people of both frontier societies had to suffered from this genocidal warfare.

Keywords: T'aejong, Yi Pang-wŏn, Zengfa, Jurchen, Genocide, Möngke Temür, Mongke Temur, Yi Sŏng-gye, Jianzhou, Transnational history.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2.

* Associate Professor, Sangmyung Univ.